

# 집단미술치료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효과

장옥점<sup>1)</sup> · 류의정<sup>1)</sup> · 송현정<sup>2)</sup>

<sup>1)</sup>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sup>2)</sup>마음자리 상담&미술치료센터 미술치료사

## The Effects of a Group Art Therapy on Job Stress and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in Oncology Units

Jang, Ok Jeom<sup>1)</sup> · Ryu, Ui Jeong<sup>1)</sup> · Song, Hyun Jeong<sup>2)</sup>

<sup>1)</sup>RN,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up>2)</sup>Art Therapist, Maeumjari Counseling & Art Therapy Cent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group art therapy on decreasing job stress and burnout of clinical oncology nurse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with repeated measures. A total of 29 clinical oncology nurses participated in the study; 15 were assign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4 in the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ly, 2014. The stud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in three different time points (pretest, 8th week, and 12th week). Data were analyzed using  $\chi^2$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paired t-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The first hypothesis "the experimental group with group art therapy will have lower job stres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 ( $F=7.88, p=.003$ ). The second hypothesis, "the experimental group will have lower burnout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not statistically supported ( $F=1.80, p=.188$ ).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group art therapy for oncology nurses may positively influence in decreasing job stress, which open a venue for developing a nursing intervention with group art therapy for clinical nurses in future.

**Key words:** Stress, Burnout, Art Therap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전 세계적인 건강문제로 발생률과 사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세 명 중 한 명

이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하지만 현대 의학의 발전과 함께 암의 치료방법들이 발전하면서 암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어 암 환자의 입원 병상 점유율은 날로 증가하여 종양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2].

암환자들은 예후에 대한 불안감과 재발 가능성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안이나 분노, 절망, 죽음에 대한 공포

**주요어:** 스트레스, 소진, 미술치료

**Corresponding author:** Jang, Ok Jeom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79, Gangnam-ro, Jinju 52727, Korea.

Tel: 82-55-750-8634, Fax: 82-55-750-8926, E-mail: okjeom75@hanmail.net

\* 경상남도 간호사회 제24회 학술대회(2015. 5.29) 구연발표 및 요약본 수록.

\* 본 연구는 2014년 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연구임.

투고일: 2015년 9월 23일 / 심사위원회일: 2015년 10월 2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0월 21일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3]. 암환자들은 암으로 인한 고통,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간호요구가 증가되어 있다[4]. 또한 암의 새로운 치료방법의 사용으로 암병동 간호사들은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빠른 습득이 필요하며, 암환자를 간호하면서 잦은 환자의 사망, 암환자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의학적인 한계, 가족들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암병동에 일하는 간호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5]. 암병동 간호사들은 입원 생활을 하는 암 환자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므로 다른 일반 병동의 간호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간호사들은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소진의 결과 절망감, 무력감, 사기저하, 근무 태만, 이직 등을 초래하게 된다[2].

간호사의 소진은 업무상황에서 반복 또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부정적인 업무태도와 환자에 대한 무관심, 사회적 지지체에 대한 원망과 함께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상태의 경험을 말한다[6]. 이것은 절망감이나 무력감으로 특징지어지며, 일에 있어서나 사생활에 있어서나 능력 상실로 이어진다. 소진은 대개 응급치료, 종양, 화상관련 분야와 같은 특별한 분야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발생하며 또한 인력부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상과 현실간의 갈등,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 일하므로 생기는 스트레스, 부적절한 인사배치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7]. 소진은 장기간의 스트레스, 정신적, 감정적 긴장, 좌절감, 고립감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로 낮은 생산성, 냉소주의, 고갈되는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 등을 초래한다[8]. 소진의 발생은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결근율을 높이고 이직률을 높인다[9].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술중재는 미술을 통한 감정 표현을 격려하여 심리적 대처를 돕고 어려운 경험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며[10], 특히 집단미술치료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 자아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집단미술치료는 여러 사람이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대인관계가 형성되어 개인치료에서는 기

대할 수 없었던 잠재적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11]. 집단미술치료의 장점은 공유의 경험이다. 집단원들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어, 개인의 고립감과 외로움이 감소하게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통이 자신에게만 독특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은 상호 지지의 경험과 아이디어, 에너지, 창조성을 자극하게 되며 높은 수준의 집단 신뢰감과 응집성이 형성된다[12]. 집단미술치료는 발달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 환자 등의 치료기법으로 시행[13-16]되었으나, 최근 직장인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Hwang 등[17]의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내적 보상과 스트레스 증세 중 생리적 증세와 행동적 증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무스트레스 결과요인 중 직무성과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Lee[18]는 사회복지사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업무스트레스 점수 감소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점수 상승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An[19]은 보육교사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더 낮아졌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더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나 소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시행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이며, 간호사 중에서도 일반 병동의 간호사들에 비해 암병동의 간호사가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20], 소진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암병동 간호인력의 소실과 간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중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암병동 간호사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목적은 집단미술치료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집단미술치료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

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2) 집단미술치료가 암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3. 연구기설

- 1)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한 실험군은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
- 2)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한 실험군은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소진 점수가 낮을 것이다.

### 4. 용어 정의

#### 1) 집단미술치료

집단이 갖고 있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집단원이 함께 미술 매체를 활용하여 미술활동을 하면서 공통 주제의 하위 영역별로 요인을 표현하고, 탐색하고, 통찰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한다[19].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가 매회기의 주제에 맞게 구성된 8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암병동 간호사

혈액암과 고형 암환자를 돌보기 위해 암병동으로 명명되어진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는 J시에 소재한 G 대학교병원의 암병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한다.

#### 3) 직무스트레스

간호사가 업무상황에서 불안, 갈등,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환경적 또는 내적 요구를 충족할 능력정도가 초과되거나 적응력이 혹사되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며[6], 본 연구에서는 Chang 등[22]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4) 소진

소진은 인간의 가치, 존엄성, 영혼, 의지가 모두 사용되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한다[23]. 본 연구에서는 Maslach와 Jackson[24]의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Choe와 Jeong[25]이 변안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

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암병동 간호사에게 시행한 집단미술치료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 실험 연구로써 비동등성 대조군 반복 측정설계이다.

### 2. 연구대상

#### 1) 연구대상자 선정

G 대학교병원의 간호부에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뒤, 암병동 수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하고자 의사를 밝힌 14명의 간호사를 실험군으로 선정하고, 대조군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간호사 15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G 대학교병원의 암병동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간호사

둘째, 집단미술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자

셋째, 집단미술치료 참여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 자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인이 서면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모집된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과정,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과 연구 진행 중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실험군에게는 집단미술치료를 받는 동안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연구 진행 동안에는 어떤 형태의 미술치료에도 참석 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 2) 표집 크기와 방법

연구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검정력 .85, 유의수 .05, 효과크기 .50, 상관관계 .50으로 계산한 결과 1개 집단 당 1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탈락을 예상하여 실험군 14명, 대조군 15명을 대상으로 총29명을 선

정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hang 등[22]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직무요구도 4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 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항의 7개 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형 척도로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음을 의미하며 긍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79$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4$ 이었다.

#### 2) 소진

Maslach와 Jackson[24]의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바탕으로 Choe와 Jeong[25]이 번안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Maslach Burnout Inventory는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자아성취감 저하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고갈 9문항, 자아성취감 저하 8문항, 비인간화 5문항 총 22문항으로, Likert형 척도로써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일' 6점으로 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경험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신뢰도는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76$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4$ 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G 대학교병원의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2014-03-003), 2014년 5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 1) 사전조사

집단미술치료 1회기에 실험군에게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소진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대조군에게는 같은 시기에 연구자가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배부하였으며, 그 다음날 작성

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 2) 실험처치(집단미술치료)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는 미술치료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미술치료사는 1,200시간의 임상수련을 거치고 미술치료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미술치료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G 대학교병원 호스피스병동의 환자와 보호자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호스피스병동 의료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집단미술치료는 전체 8회기로 진행되며 매주 1회 90분간 실시하였다. 실험처치는 전 과정을 G 대학교병원의 동일 교육장에서 진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낮근무를 마치고 여유가 있는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일자를 미리 계획하고 병원간호부와 해당병동 수간호사에게 근무편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 3일 전과 1일 전에 대상자들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상기하도록 하였다. 출석확인을 위해 출석부를 비치하여 대상자가 직접 출석부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집단미술치료과정은 초기, 적응기, 집단응집기, 개방기, 말기의 5단계 분류를 기본으로 각회기는 도입, 작업 토론, 종결로 다시 나누었다[26]. 1회기는 신뢰형성으로 집단미술치료의 목적과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자기소개와 참여동기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단 내에서 불리기를 원하는 별칭을 짓고 게임을 통해 구성원을 익히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2회기는 정서표현과 이해로 색종이의 같은 색을 선택한 구성원끼리 소집단을 만들어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활동을 하였으며, 소집단에서는 감정을 몸짓만으로 표현하고 맞추는 활동을 하였다. 3회기는 감정인식으로 가면을 반으로 나누어 내면속의 자신과 외부에서 보여지는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여 내면과 외부의 감정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회기에서 3회기까지 활동들이 초기, 적응기, 집단응집기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응기는 작업하는 방식과 집단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며 집단응집기는 집단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될지 알고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되기 보다는 3회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개방기는 구성원들이 집단에서 자신을 좀 더 개방하게 되는 시기이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스트레스원

에 대해 토론하고 작업하는 과정이다[26]. 4회기는 스트레스원 탐색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적 증상을 신체본에 표현하도록 한 후, 신체 본을 찢고 발로 밟고 날려버리는 활동을 하였다. 5회기는 스트레스 표현으로 과녁을 만들어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한 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메모지에 적어 해당되는 점수에 붙이도록 하였다. 만들어진 과녁을 향해 찰흙으로 공을 만들어 던지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을 큰소리로 외치면서 던지도록 하였다. 6회기에도 스트레스 표현으로 집단내 3~4명의 소집단을 구성하고 찰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모습을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이 표현된 모습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만들어 주는 활동을 하였다.

말기는 마무리 단계로 7회기에는 자기강화로 긍정적 자기 콜라주를 만들어 구성원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8회기에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 힘이 되는 것을 에너지 북으로 만들어 가지도록 하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는 활동을 하였다. 7회기와 8회기에서 긍정적인 자기강화, 상호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전체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였다.

### 3) 사후조사 1

집단미술치료 종료 직후 실험군에게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대조군에게는 같은 시기에 연구자가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배부하였으며, 그 다음날 작성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 4) 사후조사 2

집단미술치료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보기 위하여 실험 처치 4주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연구자가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배부하였으며 그 다음날 작성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빈도와 백분율,  $\chi^2$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 2)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확인하였다.
-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가설검정은 paired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나이, 결혼상태, 종교, 학력, 직위, 근무형태, 최근부서 경력, 총 임상경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점수에서 두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3.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검정

#### 1) 제1가설 검정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한 실험군은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간 직무스트레스( $F=3252.93, p<.001$ )와 시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차이가 있었다( $F=13.49, p<.001$ ). 또한 집단과 시간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여( $F=7.88, p=.003$ )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따라서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한 암병동 간호사(실험군)는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암병동 간호사(대조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제 1 가설은 지지되었다.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실험군의 직무스트레스는 중재 전  $2.69 \pm 0.17$ 에서 중재 직후  $2.44 \pm 0.31$ , 4주 후에는  $2.40 \pm 0.30$ 으로 낮아졌다. 대조군은 중재 전  $2.75 \pm 0.23$ 에서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29)

Characteristic	Categories	Exp. (n=14)	Cont. (n=15)	$\chi^2$	p
		n (%)	n (%)		
Gender	female	14 (100)	15 (100)	.00	1.00
	male	0 (0.0)	0 (0.0)		
Age(years)	≤ 30	9 (64.5)	9 (60.0)	.80	.670
	31~40	3 (21.3)	5 (33.3)		
	≥ 41	2 (14.2)	1 (6.7)		
Marital status	unmarried	10 (71.4)	9 (60.0)	.42*	.700
	married	4 (28.6)	6 (40.0)		
Religion	Yes	6 (42.8)	8 (53.3)	.32*	.715
	No	8 (57.2)	7 (46.7)		
Education	college	8 (57.2)	3 (20.0)	4.35	.114
	university	4 (28.6)	7 (46.7)		
	master's degree	2 (14.2)	5 (33.3)		
Job position	nurse	12 (85.8)	13 (86.6)	.01	.997
	charge nurse	1 (7.1)	1 (6.7)		
	head nurse	1 (7.1)	1 (6.7)		
Shift pattern of duties	three shifts	12 (85.8)	13 (86.6)	.01*	1.000
	full time	2 (14.2)	2 (13.4)		
Current clinical career (years)	< 1	3 (21.3)	1 (6.7)	4.89	.180
	1~< 3	9 (64.5)	7 (46.7)		
	3~< 5	2 (14.2)	4 (26.6)		
	≥ 5	0 (0.0)	3 (20.0)		
Total clinical career (years)	< 5	9 (64.5)	5 (33.3)	4.73	.316
	5~< 10	2 (14.2)	5 (33.3)		
	10~< 15	1 (7.1)	3 (20.0)		
	15~< 20	0 (0.0)	1 (6.7)		
	≥ 20	2 (14.2)	1 (6.7)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Job Stress and Burnout

(N=29)

Variables	Exp. (n=14)	Cont. (n=15)	t	p
	Mean ± SD	Mean ± SD		
Job Stress	2.69 ± .17	2.75 ± .23	-.78	.443
Burnout	2.73 ± 1.04	2.44 ± .91	-1.06	.3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Variance for Score of Job Stress and Burnout

(N=29)

Variables	Sour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Job Stress	Group <sup>B</sup>	347303.648	1	347303.926	3252.93	< .001
	Time <sup>w</sup>	190.938	1	190.938	13.49	.001
	Time*Group	218.984	1,514	144.674	7.88	.003
Burnout	Group <sup>B</sup>	312157.600	1	312157.600	351.84	< .001
	Time <sup>w</sup>	45,108	2	34,113	.10	.820
	Time*Group	798,349	1,322	603.756	1.80	.188

B=Between-subject effect; W=Within-subject effect.

Table 4. Difference of the Job Stress and Burnout

(N=29)

Variables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Difference	
		before	after	after 4 weeks	pre-post 1	pre-post 2
		Mean ±SD	Mean ±SD	Mean ±SD	t (p)	t (p)
Job Stress	Exp. (n=14)	2.69±0.17	2.44±0.31	2.40±0.30	2.96 (.011)	4.33 (.001)
	Cont. (n=15)	2.75±0.23	2.78±0.33	2.73±0.29	.38 (.707)	1.14 (.277)
Burnout	Exp. (n=14)	2.73±1.04	2.65±0.94	2.50±0.82	-.66 (.52)	.28 (.783)
	Cont. (n=15)	2.45±0.91	2.83±0.99	2.85±0.98	-1.14 (.274)	-1.16 (.26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중재 직후 2.78±0.33, 4주 후에는 2.73±0.29로 유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내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 시점 간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 직후에 유의하게 낮아졌으며(t=2.96, p=.011), 중재 4주 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33, p<.001). 반면 대조군은 중재 직후(t=.38, p=.707), 중재 4주 후(t=1.14, p=.277)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 2) 제2가설 검증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한 실험군은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소진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진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간 소진(F=351.84, p<.001)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시기에 따른 소진(F=.10, p=.820)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과 시기간의 교호작용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80, p=.188)(Table 3). 따라서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한 암병동 간호사(실험군)는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암병동 간호사(대조군)보다 소진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제 2 가설은 기각되었다.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실험군의 소진은 중재 전 2.73±1.04에서 중재 직후 2.65±0.94, 4주 후에는 2.50±0.82로 낮아졌다. 반면에 대조군은 중재 전 2.45±0.91에서 중재 직후 2.83, ±0.99, 4주 후에는 2.85±0.98로 높아졌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4).

## IV. 논 의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각 시점별로 집단미술치료는 직무스트레스를 유

의하게 감소시켰으나 소진은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다.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실험군의 직무스트레스는 실험 전에 비해 중재 직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또한 중재 4주 후까지 효과가 유의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은 실험군에서 실험 전에 비해 중재직후나 4주 후에 점수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대조군의 소진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집단미술치료를 간호사에게 적용한 선행논문이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Hwang 등[17]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2회씩 50분간 총 10회기의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내적보상과 직무스트레스 증세 중에서 생리적 증세와 행동적 증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결과요인 직무성과, 직무만족에는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Lee[18]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주 1회 90분간 총 12회기의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업무스트레스 점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An[19]은 보육교사에게 주 1회 90분간 10회기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더 낮아졌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구성과 선행연구[17-19]의 집단미술치료 구성을 비교해보면 초기단계에서는 집단미술치료를 소개하고 구성원이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뢰관계를 형성 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스트레스원을 탐색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자기강화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를 구성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구성을 보였다. 집단미술치료의 시간은 집단구성

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27], 본 연구는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낮근무를 마치고 여유가 있는 17시부터 90분간 시행하였고, Hwang 등[17]의 연구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주 2회 50분간 프로그램을 시행한 차이가 있었다. Lee[18]와 An[19]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집단미술치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참여자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느꼈던 감정과 효과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암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겪어야 할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환자의 죽음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이다[2]. 정서 표현과 이해시간에 한 참여자가 '나에게 항상 이름을 불러주면서 친근하게 대해주었던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내 근무 때 사망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고, 다른 참여자들도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슬프다', '다른 병동(정형외과)에 근무할 때는 사망하는 환자를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 '나는 환자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데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고 해서 속상하다'라고 하면서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눈물을 보인 참여자들은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참여자들도 그런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이야기 나눔으로 해소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Lee[18] 연구에서도 미술치료 회기 안에서 내면의 억제된 감정들을 안전하게 분출하고,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미술이라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정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정화를 경험하면서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암병동 간호사들은 죽음에 직면하여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암환자들의 예민함이나 짜증에 힘들어 하며 그들의 끝없이 반복되는 간호요구로 기진맥진하게 된다[2]. 스트레스원 탐색과 표현시간에 찻흙으로 공을 만들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을 큰소리로 외치면서 던지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찻흙을 던지면서 '제발, 간호사실예, 그만 좀 나오라구', 'complaint, complaint, 그만 좀 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였다. 스트레스원 탐색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적 증상을 신체 본에 표현하도록 한 후 설명을 해보도록 하니 '환자들이 계속 불려서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PCN을 달아주었다', '여기저기에서 계속 찾으니까 신발에 바퀴를 달아주었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환자나 보호자의 반복적인 요구에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를 표현하고 해소하기 위해 찻흙 던지기를 하면서 큰소리로 외치도록 하고, 그려진 스트레스 받은 사람의 모습을 찢어 버리고 발로 밟고 때리고 날려버리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찻흙 던지기를 할 때 찻흙이 맞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풀리는 것 같다', '내 스트레스도 같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크게 웃는 모습을 보였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니 가벼워지고 속이 후련해진 것 같다',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큰일 나겠다', '나만 일을 못해서 힘들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니구나 생각되어 좀 안심이 된다', '재미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n[19] 연구의 집단미술치료에도 다양한 매체활동을 통해 개인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탐색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의 느낌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감정해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간호사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8].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주치의, 상사, 동료 간호사, 다른 부서 직원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찻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모습을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이 표현된 모습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만들어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참여자는 자신을 후라이팬 위에서 볶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그 참여자를 위해 다른 참여자들은 뒤집개와 주치의 찻흙으로 만들어 주면서 '빨리 후라이팬에서 뒤집개를 가지고 나오라, 제일 스트레스를 주는 주치의(OOO)를 올려놓고 대신 볶아라'라고 말해주어 참여자 모두가 크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한 참여자는 '간호사는 샌드백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그를 위해 다른 참여자가 권투 글러브, 휴일과 돈, 여행가방을 표현하여 '샌드백을 날려버려라, 쉬는 날에 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라'라고 말해주었다. 한 참여자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인간관계속에 우물 속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다른 참여자가 갇혀있는 곳에서 빠져 나오라며 사다리를 만들어 주었



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잘 알고 만들어 주는 것 같으며 참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미술치료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찾는 것을 배우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하면서, 정서적 배출을 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 집단원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문제로 괴로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27],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암병동 근무 경험과 느낀 감정, 그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표현하고 나누면서 정서적 배출을 하고, 서로에게 지지의 경험을 가지게 되어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17-19]에서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와 경험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게 되면서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미술치료의 장점중 하나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꿈과 같은 내적 경험은 언어적인 형태보다는 이미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이미지를 떠올리고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미지가 가진 영향력을 누릴 수 있게 된다[29]. 자기강화를 위해 긍정적 자기 이미지 콜라주를 만드는 시간을 가진 참여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많고 내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고 살았다’, ‘내가 바라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만 봤는데도 이룬 것 같이 뿌듯하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스트레스는 던져 버리고 좋은 내용만 담아서 가야겠다. 스트레스는 거침없이 표현했는데 좋아하는 것이 빨리 떠오르지 않아서 좀 여유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을 지지해 줄 소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자기강화를 위해 마무리 단계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자화상 만들기, 선물 주고받기[17], 내 나무, 나의 역할[18],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소중한 사람[19]이라는 주제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로 인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면서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교대근무와 근무조정이 힘든 병동 특성상 실험군 선정시 참여의사를 밝힌 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대조군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자들은 근무 외 시간에 미술치료를 참석하여야 하고 근무를 하고 참석한 날에는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시간에 맞추어 오느라 업무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 ‘이 과정을 빠짐없이 참여하고 일단 끝나서 너무 기쁘다. 하지만 목요일이 허전할 것 같다’, ‘쉬는 날이나 근무가 끝나고 집단미술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이 좀 힘들었다’라고 말하여 집단미술치료 참석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재 직후보다는 중재 4주 후에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참석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근무 시간 내에 포함하는 행정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참여자는 ‘같은 병원 사람들이라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모두 드러내기는 어려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참여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좋았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잠깐 일상을 떠나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다른 병동 간호사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고,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행된 집단미술치료는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소진을 감소시키지는 못하였다. 소진이란 직무 안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7]으로 8회기로 구성된 한시적 집단미술치료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집단미술치료가 간호사들의 업무시간 외에 시행되어 참석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Lee와 Tae[2]는 암병동 간호사는 암으로 인한 고통,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간호요구도가 증가되며 이로 인한 간호사의 높은 에너지 소모가 소진과 관련있다고 하였고, 암병동 간호사의 소진 관리를 위해 행정적 배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소진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 이미 많은 직장에서 직원

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이 높은 직업이며 의료 인력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집단미술치료는 이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한 실험군은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집단과 시기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 $F=7.88, p=.003$ ). 그러나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한 실험군은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소진 점수가 낮을 것이다.”는 제 2가설은 기각되었다 ( $F=1.80, p=.188$ ). 결론적으로 집단미술치료는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집단미술치료를 암병동 간호사와 다른 병동의 간호사에게 적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2)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간호사의 참여 전후 경험을 심도있게 규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National Cancer Center. Cancer facts & figures 2014 [Internet]. Goyang: National Cancer Center; 2014[cited 2014 March 20]. Available from: <http://www.cancer.go.kr/ebook/101/PC/101.html>.
2. Lee YS, Tae YS. The lived experience of the burnout of nurses working in oncology wards. *Asian Oncology Nursing*. 2012;12(1):100-109. <http://dx.doi.org/10.5388/aon.2012.12.1.100>
3. Fairbrother CA, Paice JA. Life's final journey: The oncology nurse's role.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2005; 9(5):575-579.
4. Shin MH, Shin SR. Predictors of burnout among oncology nurses. *Asian Oncology Nursing*. 2003;3(1):75-84.
5. Lee KO, Yun HJ. Correlation between the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nurses caring of cancer patients.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2006;31(2):85-99.
6. Hong KP. An analytic study on burnout in relation with personal and job related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1984. p. 1-127.
7. Kim HS. Introduction to Nursing. Seoul: Hyunmoon publishing; 2000. p. 365-367.
8. Gorkin M. The four stages of burnout. *Principal*. 2004; 83(4):24-27.
9. Go GB. Stress & Psychosomatic Medicine. Seoul: Ilchokak; 2002. p. 77-91.
10. Jo MJ. Effects of art intervention program for siblings of pediatric cancer patients [dissertation].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3. p. 1-69.
11. Jeon MH, Choi WS. The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in improving adolescents' self-esteem and social-adjustment ability. *The Korea Journal of Art Therapy*. 1998;5(1):75-90.
12. Wadeson, H. The dynamics of art psychotherapy.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1995. p. 141-168.
13. Lee KM, Kim KS.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reduction of problem behavior and elevation of sociality for the developmental disorder adolescent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006;2(1):130-150.
14. Lee HJ.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art therapy to maladjusted adolescents in school life 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self-regulation 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18(11):31-60.
15. Cheon ME, Kim SE. A study on how group art therapy influences on anger expression of patients with strok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013;9(1):239-261.
16. Hong JY.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self-esteem, social avoidance and anxiety of the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007;3(2): 169-189.
17. Hwang HK, Choi EY, Chong GC.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to the public official's job str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6;7(2):325-345.
18. Lee SJ.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of social workers [master's thesis]. Seoul: Seoul Women's University; 2009. p. 1-62.
19. An SH.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job stress and coping style of nurtu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011;18(5):1135-1157.
20. Kim HS. A comparative study regarding health condition and work stress of nurses working in cancer ward and

- general ward, *Asian Oncology Nursing*. 2001;1(2):191-203.
21. Kim MJ. Relationship among spiritual well-being, work stress and burnout of nurses in oncology unit [dissertation]. Busan: Kosin University; 2005. p. 1-51.
  22. Chang SJ, Koh SB, Kang D, Kim SA, Kang MG, Lee CG, et al.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05;17(4):297-317.
  23. Maslach C, Schaufeli WB, Leiter MP.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001;52:397-422.
  24. Maslach C, Jackson SE.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1981;2:99-113.
  25. Choe HY, Jeong NU. Perfectionism tendency,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o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3;8(2):279-300.
  26. Liebmann M. *Art therapy for groups*. 2nd ed. Choi WS, Kim KS, Jeon JK, Choi YS. Seoul: Hakjisa; 2004. p. 63-92.
  27. Kim SH. *Understanding and practice group art therapy*. Paju: Idambooks; 2010. p. 11-44.
  28. Gu MO, Kim MJ. An analytical study of work stress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85;15(3):39-49.
  29. Ju LE. *Art therapy*. Seoul: Hakjisa; 2011. p. 19-65.